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과 여가스포츠 현상에 관한 고찰

김미혜¹ · 신규리² · 김권일³

¹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 ²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³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Work and Leisure Sports in an Era of Neoliberalism

Kim, Mihye¹ · Shin, Kyulee² · Kim, Kwonil³

^{1,2}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³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leisure sports phenomena appear in an era of neoliberalism, and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 phenomena occu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based on previous studies, competitive labor and the lives of workers that appeared during the period were discussed. This takes into accou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leisure is mutually exclusive and complementary. Second, four major leisure sports phenomena were identified. Third,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se phenomena occur was interpreted, and leisure reflection was presented. These research results may contribute to grasping the meaning of work and leisure during this period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leisure.

Key words : Neoliberalism, Work, Leisure, Sports, Autonomy, Self-Development

주요어 : 신자유주의, 노동, 여가, 스포츠, 자율성, 자기계발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wonil

E-mail: apa06@kspo.or.kr

Received: November, 12, 2023 Revised: December, 20, 2023 Accepted: December, 24, 20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초반 영국 및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고, 케인즈 이론에 따른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태동되었다(장상철, 2006). 신자유주의의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하비(harvey)의 개념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정의된다(장상철, 2021 재인용).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명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체결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으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 안으로 깊숙이 내부화되었다고 평가된다(장상철, 2021).

신자유주의를 간략히 설명하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기업국가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장훈, 강원택, 김영순, 구갑우, 2000). 신자유주의는 큰 국가로부터 정부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작은 정부로의 회귀이자(이종선, 2002), 노동시장의 유연화(윤상우, 2022), 자본시장의 세계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기본방향은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특성과 제도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수용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신자유주의는 ‘한국형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언급되고 있다(윤상우, 2009).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방향인 시장의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앞에 달리고 있는 것을

따라잡는 의미인 캐치업(catch up)과 같이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국가발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특유의 성장우선주의와 발전주의라는 국가목표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분배보다는 성장을, 엘리트 및 기술관료 주도적인 경제운용이라는 특성을 강화한 것이다(장상철, 2021). 유럽사회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한 신자유주의로 불린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김동춘, 2010).

한국적 신자유주의는 노동과 복지의 배제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기업들과 일부 엘리트 집단은 더 많은 기회와 함께 성장한 반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이영자, 2011).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은 마치 오디션 서바이벌 시장과 같다고 지적한다(신민희, 2018). 오디션 장에서 참가자는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실력이 가장 우수한 자만 생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기존인력 조차 감축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

한편, 노동과 여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여가는 개인이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선택의 자유를 발휘하는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여가스포츠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에 신체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업의 일부 또는 일상의 맥락에서 장소와 장소를 오가는 신체적 움직임과는 구별된다(Steinback & Graf, 2008). 자기계발이 중요해진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여가스포츠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자에 의해 한국사회의 바디프로필 열풍은 몸을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삼으며, 자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고(황하연, 2023), 이는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는 부족함이 있다.

그동안 체육학계는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신성아(2008)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박지성과 같은 스포츠 스타를 국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박지성은 신체적 악조건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고진감래의 성공신화를 확산했고, 이는 작은 정부에서 개인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자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재철(2017)의 연구에서도 <청춘 F.C.>라는 TV예능 프로그램은 축구라는 소재를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에 넣어 선수로 상징되는 참가자들을 통해 절실함이라는 유사 열정의 노동윤리를 주입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엘리트스포츠 선수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여가스포츠에 관한 연구들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이론적 근거 틀로써 신자유주의가 노동과 여가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삶을 고찰하였다. 이는 노동과 여가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고 보완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한국적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나타난 여가스포츠 현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현상에 대한 여가학적 성찰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과 여가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가 및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자율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의 노동환경

본 장은 신자유주의 노동환경에 대하여 기술한 한병철의 저서 피로사회(2010)와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논의된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의 과거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이나 기업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회가 기능하도록 통제하였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사회는 그러한 부정성, 즉 정부의 규율이나 사회적 제재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한병철, 2010).

예를 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성공하라’는 주요한 규율을 주입하며, ‘너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별 행위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설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를 외치면서 직업적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게 된다(한병철, 2010).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사회의 규율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다면, 신자유주의의 긍정성은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21세기 현대인의 주요한 질병은 생리적 기전에 의한 정신병적 우울증의 발병이 아니라, 실존적 공허감과 같이 자신의 존재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에서 오는 신경증적 측면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김미혜, 신규리, 2022).

둘째,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하는 자유화 정책을 지향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력의 투입과 시기, 임금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즉 기업은 경기 불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며, 임금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경제정책은 도입하였으나 덴마크 등 유럽에 비해 취약 노동자계층을 위한 공동선으로써 복지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는 소득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게 된다(김문정, 2016).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전력투구하여 일하고,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에 의해서 잘 작동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가 보여주는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완전한 자율성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본래적 의미의 자율성이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통제함으로써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인의식이 담겨 있어야 한다(김석수, 2007). 따라서 오늘날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자율성은 온전한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경기불황이라는 복합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계발하는 습관이 반영된 행동일 수 있다(안승범, 2022).

사회학자 푸코 역시 신자유주의적 자율의 요구에 일사불란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Foucault, 2012). 그는 신자유주의 사회에 순응하는 것과 온전한 자율성을 구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기업자적 자아’이자 ‘자기계발하는 주체성’을 고양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다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박소진, 2009; 엄혜진, 2016; 최지원, 서문기, 2018). 앞서 서론에서 신자유주의의 경쟁적인 노동환경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인 초국가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이에 개발도

상국은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고, 개인도 세계 시장에서 모여든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계발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직들의 실력은 상향평준화된다. 경제 불황으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구직자의 입장에서 경쟁자들의 스펙이 점점 상향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최지원, 서문기, 2018).

Ⅲ.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나타난 여가스포츠 현상

본 장에서는 노동과 여가는 상호배타적임과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여가스포츠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연구결과는 3명의 전문가(여가학 전공 교수 3인)의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1. 자발적 여가선택 혹은 체제의 순응

앞의 장에서 생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에서 보여주는 자율성은 경쟁사회에서 발 빠르게 적응하려는 순응의 측면이 강하고, 본질적 의미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여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여가참여가 자발적인 선택일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가치와 사회 규범에 적응하면서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을 따르기 위하여 여가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들이 여가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고, 퇴근 후나 주말 여가시간에서도 자기계발을 꾸준히 함

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에서 창조문화를 선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01.12.).

기업역시, 근로자에게 여가를 통한 자기계발을 권한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여가친화인증제의 생산성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여가친화 인증기업에 대하여 홍보 및 가산점 제도 등 정책적 지원하고 있다(박정열, 전은선, 손영미, 신규리, 2016). 따라서 근로자들은 신자유주의로 점철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정부와 기업을 통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인간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요약하면, 신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자기계발하는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박소진, 2009; 엄혜진, 2016), 여가참여 결정에 있어서도 여가참여에 대하여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여가권 확대 혹은 상대적 여가박탈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가시간의 양과 질을 위해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써 여가권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가가 인간의 권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각계각층의 수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휴식에 대한 권리로써 전개된 노동운동과 노동법의 개정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박현미, 2015). 한국사회가 이처럼 여가를 위한 제도와 인식을 갖추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가권이 확대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 여가는 199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부 계층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정책의 도입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대상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여가권을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이렇듯 여가향유를 위한 정부의 제도는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으로 여가에 참여할 수 없거나 불만족스러운 여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래서 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비교의식과 여가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것에서 오는 이중의 박탈감을 겪게 된다(박재우, 임승엽, 2014; 서미혜, 2017).

문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2010년대 이후로 경제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생계유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투잡족이나 N잡러들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된다. N잡러는 본업과 함께 부업의 일을 하는데, 부업의 수가 두 가지를 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에서 급여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추가적인 노동으로 시간압박에 시달리며 여가를 포기하게 된다(이재성, 2020).

또 다른 문헌에서는 노동자의 시간압박은 여가스포츠 참여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차승은, 2011). 차승은의 후속연구(2014)에서도 남녀근로자 모두에게서 시간압박감과 신체활동 참여(걷기, 수동적, 능동적 스포츠)는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2017)의 연구에서도 근로자의 시간압박은 신체활동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느낄수록, 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의 참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사조와 함께 나타난 여가스포츠 현상으로써 스포츠 참여율이 침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휴식이나 TV시청과 같은 여가활동에 비해 스포츠 참여율이 침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휴식이나 TV시청과 같은 여가활동에 비해 스포츠 참여율이 침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포츠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여가활동일 수 있다(차승은, 2011).

3. 여가스포츠 취향 혹은 차별적 과시욕구

MZ세대의 골프와 테니스 열풍은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세대만의 여가스포츠 취향이자 독특한 향유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임재구, 김덕중, 2015),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골프를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기 위한 전략으로써 차별적 과시욕구로 볼 수도 있다(권기남, 임수원, 2009).

먼저 MZ세대의 골프 열풍은 구별 짓기의 측면을 살펴보면, 20, 30대 청년들은 현재 자신의 경제력으로 주택이나 값비싼 차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골프 용품과 의상을 구매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 구별짓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MZ세대의 테니스 열풍은 골프 열풍에 이어 나타난 현상인데, 골프보다는 용품이나 이용료가 저렴하고, 장소의 접근성이 좋고, 눈에 띄는 의상과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어 MZ세대의 구별 짓기를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이석무, 2022. 09.23). 실제로 임새미와 김찬룡(2022)의 연구에 따르면, MZ세대 테니스 참여자들은 테니스를 치는 것이 아무나 잘 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그들 사이에서 구별될 수 있기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취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MZ세대의 골프와 테니스 참여는 문화자본의 하나로써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취향을 가꾸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골프는 5060세대의 과시를 통한 구별 짓기의 대표적인 수단이었다(권기남, 임수원, 2009). 하지만 MZ세대에게 골프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MZ세대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문

화를 자신들만 독점하려 하기보다는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개성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향유한다(박종민, 2021.09.14). 이러한 관점에서 MZ세대에게 골프는 과시적 소비를 통한 사회계층적인 구별짓기 전략이라기보다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취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취향도 일정의 구별짓기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오지현, 차영화, 박해란, 최셋별, 2021). 취향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Z세대의 골프 참여는 사회계급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써의 위계적인 구별짓기가 아닌 주류에 편입하지 않고 진정한 본인의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려는 개성 중심의 구별짓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바디프로필 권하는 사회: 건강증진 혹은 자기계발

한국적 신자유주의 사조의 현실을 먹고 자란 딜레마로 불리는 자기계발 문화는 자기계발의 영역을 지식을 넘어 '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소은, 김정영, 박찬경, 이성민, 2013).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체중이 증가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동과 다이어트로 근육질의 날씬한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바디프로필은 운동과 식이조절을 통해 최상의 몸을 만든 후 기록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성취에 대한 공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이지만, 자기계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양선희, 2023). 또한 학자들은 젊은 층이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이 개인 스스로 몸을 검열하고 관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이소은 등 2013).

과거부터 우리사회는 뚱뚱한 몸을 가진 사람을 건강상에 위협이 있고,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창섭, 남상우, 2014). 오늘날은 한국적 신자유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날씬하고 근육질의 건강미가 넘치는 몸은 좋은 사회성, 성공과 성취의 표상인 반면, 비만한 몸은 무능하고, 자기계발에 소홀하며, 무절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IV.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나타난 여가스포츠 현상에 대한 성찰

첫 번째 현상으로, 자발적 여가선택인가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식 통치 전략은 규제를 통해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는 대중이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스스로 설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활동적 삶 자체가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행동의 수준은 단순한 분주함을 야기할 뿐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는 것과 거리가 있다. 그저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여가시간에도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김미혜, 신규리, 2022).

그러므로 한국적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자체를 진정으로 즐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균형을 이루어 휴식과 관조의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손윤락, 201).

두 번째 현상으로, 여가권 확대와 동시에 상대적 여가박탈이 나타나는 모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국민의 여가권을 보장하고 여가향유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여가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거나,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인간은 여가에 참여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가참여 기회의 제약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불가피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의 여가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선과 공동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현상으로, 여가스포츠 취향 혹은 차별적 과시 욕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MZ세대의 골프 열풍을 사례로 취향의 측면과 과시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골프를 통한 구별짓기의 양상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자주 논의되었으며, 취향의 측면은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MZ세대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MZ세대는 SNS를 통해 개인과 개인, 그리고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 생각, 느낌을 타인과 비교하며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거나 거부하는 등 개인과 집단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구별짓기와 취향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임재구, 김덕중, 2015). 기존 세대에서 등산, 헬스, 축구 등은 대중문화로 취급되었지만 MZ세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즐기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취향은

제급에 종속되지 않고 계층을 넘나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MZ세대는 골프를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류계층의 전유물로써 자신들만 한정적으로 향유하려 하기보다는 SNS의 사진 게시를 통해서 골프장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공유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고급문화에 대한 추종으로 동기부여 되었을 수 있지만 어느 과정에서 개인의 취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맥락에서 자기계발형 여가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형 여가스포츠 참여 현상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음주, 쇼핑, 섹스 탐닉과 같은 쾌락을 쫓는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여가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덮어놓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이 투영된 사회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계발형 여가참여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러한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을 통해 즐거움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인에게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는 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학계의 논의를 통해 여가참여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여가활동 자체를 즐기는 놀이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다. 오히려 개인의 선택에 깊이 개입하면 자기계발을 통해 즐거움을 영위하려는 것을 억압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가의 본질은 놀이성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계발형 여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흐름을 쫓느라 여가에서 조차 편하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알림을 담당하려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나타난 노동과 여가스포츠 현상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여가스포츠 참여의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여가스포츠 현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여가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순응의 가능성을 가진다. 둘째, 한국사회는 여가시간의 양과 질을 위해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박탈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함께 공존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여가스포츠 취향이자 차별적 과시욕구의 반영이다. 넷째, 바디프로필과 같은 여가스포츠 참여방식은 건강증진 행동이자 자기계발을 강요받는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난 자기계발의 일환이다.

본 연구결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계발이 일상이 된 사회 맥락에서 여가참여자의 자율성을 깊이 성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계발형 여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자기계발만을 여가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노동과 여가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가스포츠 참여와 관련하여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응과 체육 및 여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01.12). “인문.여가문화로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 지원”.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4529
- 권기남, 임수원(2009). 상류계급 골프참여자들의 구별짓기와 계급 공고화 전략. **한국체육학회지**, 48(6), 87-98.
- 김문정(2016).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3), 267-281.
- 김미혜, 신규리(2022). 현대사회 실존적 공허에 대처하는 여가참여의 방향. **한국융합과학회지**, 11(5), 71-80.
- 김석수(2007). 21세기 사회와 시민자치: 자율, 인정, 연대, 그리고 자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4, 1-34.
- 김석수(2010). 자율성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 서구 자율성 이론과 연계하여. **사회와 철학**, 19, 101-128.
- 김유식, 이솔잎, 김아름(2012). 직장인들의 여가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6), 401-410.
- 김종민(2010). 여가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스포츠과학논문집**, 22, 1-13.
- 김진숙(2017).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실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2007). 2006 여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12-39.
- 박재우, 임승엽(2014). 창조경제와 여가산업 정책: 사회적 가치 전환 시대의 논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126-140.
- 박정열, 전은선, 손영미, 신규리(2016).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여가학연구**, 14(4), 1-22.
- 박지남, 천혜정(2012). 청년세대의 ‘나 홀로 여가’ 문화. **여가학연구**, 10(2), 87-105.
- 박현미(2015). 노조가 노동자 여가에 관심 가져야-남녀노동자 생활세계 연구: 한국노총 20~30 대 조합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월간 한국노총**, 514, 26-27.
- 서미혜(2017). SNS 이용이 상대적 박탈감과 객관적 주관적 경제 지위 간 격차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83, 72-95.
- 손윤락(201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축제와 시민의 여가, 그리고 관조. **인문논총**, 75(3), 79-110.
- 신민희(2018). 서바이벌 오디션에 나타난 노동의 구조와 죽음의 정치. **인문학논총**, 46, 99-122.
- 안승범(2022). 불공정 피로사회, 비상식 투명사회의 폭력구조-〈오징어 게임〉,〈지옥〉론. **문화콘텐츠연구**, 24, 7-37.
- 양선희(2023). 미디어가 재현하는 ‘바디프로필 권하는 사회’: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2(2), 7-36.
- 윤상우(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 **아시아리뷰**, 12(2), 7-40.
- 이소은, 김정영, 박찬경, 이성민(2013). 몸과 관계 맺기, 자기를 상상하기: 자기관리 전술로서의 헬스. **언론과 사회**, 21(2), 73-118.
- 이재성(2020).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도시연구**, 17, 95-132.
- 장상철(2021).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현상과 인식**, 45(2), 35-58.
- 장상환(2006). 케인스주의의 의의와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3(1), 58-87.
- 장훈, 강원택, 김영순, 구갑우(2000). 영국에서 국가성 변화의 이송성에 대한 연구: 케인즈

- 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국제정치논총**, 40(3), 297-316.
- 정성호, 김창우, 이광호(2009). 신자유주의에 따른 태권도장 교육관의 변화.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113-129.
- 중소기업연구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 박종민(2021. 09. 14.). 건강? 친목? 과시? MZ세대의 '골프 활용법'. **한스경제**.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813>
- 보건사회연구원(2013).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87.
- 엄혜진(2016).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2), 31-69.
- 오지현, 차영화, 김서현, 박해란, 최셋별(2021). 수평적 취향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구별짓기: 독서모임 커뮤니티〈트레바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2), 183-244.
- 이석무(2022. 09. 23.). [테니스열풍]너도나도 테린이..MZ세대는 왜 테니스에 열광하나.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20923050050759>
- 이영자(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후기 근대적 변종. **현상과인식**, 35(3), 103-127.
- 이종선(2002). 한국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 36(3), 25-45.
- 이창섭, 남상우(2014). 청소년이 인식하는 비만의 사회적 표상 척도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3(1), 53-64.
- 임새미, 김찬룡(2022). 생활체육 테니스동호인들의 여가문화 향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4), 114-128.
- 임재구, 김덕중(2015). 여가스포츠 소비양식에 따른 취향성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1), 283-293.
- 차승은(2011).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 제약: 건강행동의 선택 혹은 회생?. **한국인구학**, 34(2), 65-90.
- 차승은(2014). 유급노동시간, 시간압박감 그리고 휴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37(3), 25-52.
- 최지원, 서문기(2018). 성찰적 여가를 통한 '나'표현하기: 책방 독서모임을 매개로 표현하는 자기 정체성. **문화콘텐츠연구**, 13, 7-41.
-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노동연구원(202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세종.
- 한병철(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 황하연(2023). '건강해 보이는' 몸의 전시: 바디프로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Foucault, M.(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심세광, 역). 난장,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8-1979*.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teinbach, D., & Graf, C. (2008). *Leisure Time and Sedentary Life Style*. In *Encyclopedia of Public Health*///*Encyclopedia of public health: Springer reference: Vol. Volume II IZ* (pp. 849-851). Springer Verlag.